

마음 열기

찬송가 259장을 함께 부르시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2026년에 대한 각오나 다짐을 나눠주세요.

말씀 나누기

마가복음 8장 14-21절, “누룩을 찾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부패시키는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15절).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조금만 들어가도 순식간에 전체로 퍼져 부풀려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본질을 변질시키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도 우리를 부패하고 변질되게 하는 영적 누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 자신의 연약함**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뿐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물질**도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자체가 누룩은 아니지만 치우치고 잘못 붙들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의 심령을 죽여가게 합니다.

누룩이 우리를 부패시키고 변질시키며 죽여가게 하는 이유는, **누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 나의 연약함은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생각과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의 은혜와 날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누룩이 없어 밋밋하고 푸석한 무교병을 먹으며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 때에 보지 못했던 은혜가 보이고, 눈과 귀가 열리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룩에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15절)**. ‘바리새’는 ‘거룩하게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작 바리새인들은 **겉모습과 형식으로만 신앙생활하였고, 마음 중심으로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옳다 여기며 겉모습만 보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였고, 예수님의 부활 또한 인정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퍼지면 내 생각과 판단만 옳다고 여기며 자기의 의로 모든 것을 분별하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내 뜻을 강

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도는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해져서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둘째,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15절)**. 헤롯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권력과 물질, 정치적 욕심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세상의 것들,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하나님의 진리보다 앞세우는 세상주의와 물질주의**입니다. 이 누룩이 마음에 퍼지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세상의 것을 붙들고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회주의자가 되어 때로는 말씀과 신앙생활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장에는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누룩은 결국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심령을 어둡게 하여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누룩들을 버려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여 진리를 앞세우고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 눈과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누룩을 경고하셨음에도, 제자들은 당장 떡이 없다는 것에만 매여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16-18절). 제자들은 자신들의 누룩으로 인해 눈과 귀가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떡이 하나밖에 없음을 가지고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 이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통해 **떡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떡 한개’가 되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과 영원한 배부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안의 영적 누룩들을 제거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맺음말.

우리 심령 속에 누룩이 퍼지면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뎌지며, 심령이 점점 죽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며, 세상 근심에 붙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누룩을 버리고 오직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됩니다. 이 진리를 방해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내 안에는 어떤 누룩이 있나요? 점검해 봅시다.
2. 제자들처럼 눈과 귀가 가리워져 근심 걱정에서 떨었던 적이 있나요?
3.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붙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2.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보며 낙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3. 오직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룻기와 사무엘서를 통해 일상의 작은 순종 속에 담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발견하고,
시편과 예레미야를 통해 고통과 비극의 순간에도 여전히 임하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데살로니가전후서를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시는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